

# 나주시 “호남 중심·에너지수도 건설”

### 사무식 갖고 시민 행복·지역 발전 전념...대형연구시설 유치 혁신도시 시즌2 ‘총력’

나주시가 2022년 임인년 시정 출발을 알리는 사무식을 갖고 ‘호남의 중심·에너지수도 나주’ 건설을 위한 합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주시는 3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강인규 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 부처장, 읍·면·동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사무식’을 개최했다.

나주시는 민선 7기 시정이 마무리되는 올해 ‘코로나19로부터 온전한 일상회복 지원’, ‘선도 정책과제 전략적 추진’, ‘상생하는 지지농업 실현’, ‘문화·예술·관광도시 위상 정립’, ‘혁신도시 시즌2 선제적 대응’, ‘지방자치시대 열린 시정 구현’ 등 6대 중점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둔 총체적 방역, 경제지원 인프라 구축과 선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제 안전도시 공인 인증 획득,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을 비롯한 영산강 생태복원, 금성산 도립공원 지정, 마한사 복원, LG화학 나주공장 관내 이전 등 선도 정책과제는 민관의 개방적 협치와 국정과제 채택을 통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시는 ‘나주형 로컬푸드 인증제도 구축’, ‘농산물 제2가공센터 개소’,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더불어 침체된 농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인프라 확대, 농업인력 수급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사이버 나주학 자료관 구축’, ‘옛 나주국



나주시는 3일 사무식을 갖고 ‘호남의 중심·에너지수도 나주’ 건설을 목표로 6대 운영 방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나주시 제공>

장 문화재생,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나주 읍성·나주목관아·향교복원 정비’ 등 2천년 역사에 기반한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정책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표방하는 나주시는 올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 한전 에너지 신기술연구소 개소와 더불어 초강력레이저센터 등 국가 대형 연구시설 유치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국정 방향인 ‘혁신도시 시즌2’의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전라남도·16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의 추진 체계, 유치전략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또

한 ‘시민 건강권·환경권 보장’의 확고한 입장 가운데 이해 당사자와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강인규 시장은 이날 사무식에 앞서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교육장, 기관·단체장과 현충탑, 정렬사 참배 일정을 가졌다.

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지방정부가 새 출범하는 변화의 시대에 맞춰 호남의 중심, 에너지수도 나주 건설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1000여 공직자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기자 노트

## 장흥군 ‘맛보기 사무관’ 인사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행정의 꽃’이라는 5급 사무관은 흔히 ‘벼슬(관) 자리’로 불린다. 과거 풍습에 지방관서 6급 이하의 중간계층으로 분류돼 그다지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생전에 사무관을 지냈다면 제사날 지방에 ‘현고 사무관 부군 신위’로 새겨 부를 정도였다.



김용기 중부 취재본부장

요즘에도 사무관 퇴직자들은 자치단체마다 편찬하는 ‘고을 인사록’ 인물란에 등재된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듯하다.

민선7기 들어 장흥군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년퇴직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해 ‘맛보기 사무관’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중순 군수 취임후 정년 1년에서 6개월 남은 말년 6급 팀장급들이 줄줄이 사무관 수혜를 받았다.

지난 2019년에 1명(6개월)을 비롯해 2020년에 2명(1년)이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올 초 인사에선 정년을 6개월 앞둔 2명을 포함해 5

명이 사무관에 올랐다. 장흥군은 지난해 7월 기준 사무관 정원이 3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둔채 이번에 1년만에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6개월짜리 사무관은 2개월 교육 이수 과정을 빼면 실제 4개월여에 불과한 단명 사무관이다. 이 때문에 사무관 맛만 보고 퇴직하게 되는 정중순 장흥군수의 ‘맛보기 사무관’ 승진인사 스타일을 두고 공직 내부와 지역사회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다.

일선 기초자치단체 사무관은 중앙부처의 실무 주무관과는 달리 분청 과장급과 읍·면장 보직을 받는다. 6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과 사무분장, 전결권 등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고급간부다.

그런만큼 사무관 승진 인사는 늘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이왕 ‘행정의 꽃’으로 키우려면 피다 마는 ‘꽃’보다 오래피는 ‘꽃’이 되는 인사가 좋지 않을까 싶다. </kim@kwangju.co.kr>

## 장성군 ‘1000원 농촌버스’ 달린다

### 장성 관내 승·하차시 단일요금 본격 시행

장성군이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도입하는 ‘1000원 농촌버스’가 새해 1월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1000원 농촌버스’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일요금제’를 적용한다.

단 장성에서 승차 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하차하거나 타 지역에서 승차한 뒤 장성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존 구간요금제를 적용받는다.

장성군의 기존 농촌버스 기본요금은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은 750원이었다. 여기에 운행거리 10km를 초과 시 마다 1km당 132원이 할증되는 거리·구간 비례요금제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장성군이 주민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버스운송사업자인 ㈜

군민운수와 업무협약을 마쳤다.

1일부터 시행되는 단일요금제 버스요금은 성인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은 500원이다. 연간 환산하면 약 3억 2700만원의 요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1000원 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버스사업자의 운송수입 손실은 군비로 보전해준다.

현재 장성에는 총 33대의 농촌버스가 73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2월 신규 아파트 단지 준공과 늘어난 도로망을 반영해 버스 노선을 대폭 개편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1000원 농촌버스 운영으로



달리는 ‘옐로우시티(Yellow-City) 장성군’ 홍보 매체로 변신한 장성 관내버스.

가게 부담은 줄어들고,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은 활발해 질 것”이라며 “새해에도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군,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 완료

### 칠량·임도 등 14곳...대구·신전 등은 내달까지

강진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대구도 산사태 피해지역 14개소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집중호우 460mm가 쏟아져 강진군 칠량·대구·마량·도암면 등 총 14개소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군은 신속하게 피해지 조사를 완료하고 산림청·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국·도비를 포함해 7억 68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군은 지난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공 후 가우도와 생활권, 경작지 등 민가 피해지를

우선으로 복구했으며, 이어 칠량 명주리 임도와 대구면 용운리의 피해지 복구공사를 완료했다.

또 피해지 조사 후 추가 접수된 소규모 피해지인 강진·대구·신전 등 5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임향복 강진군 해양산림과장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추가 사방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4월 29일 개막 함평 나비대축제 주제 공모

### 함평관광재단 10일까지

함평축제관광재단이 오는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10일 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개최 예정인 함평나비대축제 주제를 공모한다.

올해 나비축제 주제는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단어로 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

성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공감성, 창의성, 함축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접수된 주제안을 심사해 3개 작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주제 제안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